



2024 Ma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하나은행



장*정 / 0118208**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하나은행

금리

4월
동향

중동 불씨 확산 속 3월 미국 CPI 둔화세 약화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 여기에 견조한 미 소매판매 등도 상승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 크게 하회함에 따라 소폭 하락 전환 마감

견조한 흐름의 미국 경제에도 불구하고, 대만 지진 여파와 중동전쟁 이슈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하락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이어 미 3월 CPI의 둔화세 약화 등으로 재차 상승

중동 갈등의 첨예화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와 미국 주요 경제지표의 견조함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추세 유지

주요국 통화정책 당국자의 매파 발언, 호주 물가 상승세 지속 등의 금리 상승 요인에도 미국 1분기 GDP가 크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국내외 금리 전반적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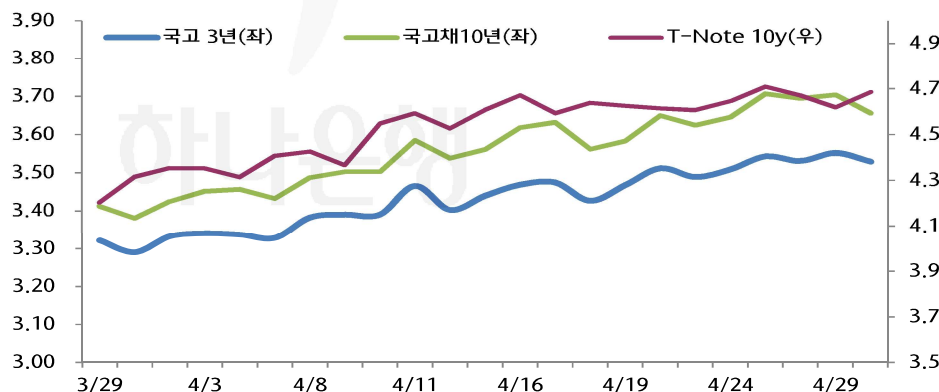
- 월초, 견조한 미국 경제 흐름 반영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후, 대만 지진 여파와 중동전쟁 불확실성의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 하지만 이어진 미 3월 CPI 둔화세 약화 속에 재차 상승 시현
 - 월 초, 미 제조업 PMI의 확장세와 고용지표의 견조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대만 지진 여파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에 하락 흐름으로 전환
 - 이어, 시장 예상 상회한 미 고용지표와 3월 CPI의 전월대비 0.4%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지연 우려로 상승 후, 이어진 한은 금통위 도비시 결과와 예상보다 낮은 미 PPI 결과 등으로 국고채금리 급락 시현
- 중반, 이란의 공습과 이스라엘 보복 예고 등 지정학적 이슈 부각 속 유가 상승 우려와 미국 소매판매 호조 등에 의한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 이어진 국면
 - 중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재보복 예고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와 미국 소매판매 지표의 견조함 등으로 연내 금리인하 지연 이슈 부각되며 초반의 상승 추세 이어진 국면
 - 여기에 파월의장 연설 내용이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 성향으로 시장이 인식한 측면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
- 후반, 연준과 BOJ 인사들의 잇단 매파 발언, 호주 물가의 예상치 상회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인 국면. 하지만 이어 발표된 미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영향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마감
 - 후반, 연준과 BOJ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잇단 매파적 발언과 호주의 소비자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영향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인 동인으로 작용
 - 이어 미 1분기 PCE 가격지수가 전분기보다 높게 나온 점도 금리 상승 압력요인이었으나, 이어진 미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1.6% 시현에 그치면서 미국 경제 우려에 대한 금리인하 기대 상승 등으로 작용하며 국내외 금리 크게 하락하며 마감

4월 평균

국고채(3년): 3.44%

T-Note(10년): 4.54%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5 월
전망

다소 강한 국내 1분기 성장 결과와 하방 경직성의 국제유가 흐름 등이 금리 하단 지지 요인. 하지만 비둘기 흐름 보인 연준과 ECB 선제적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은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F)	3.50 ^(F)	3.40 ^(F)	3.20 ^(F)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하고는 있지만, 1분기 미국 GDP의 예상치 큰 폭 하회 속 경기둔화 경로에 대한 경계감 등이 일정 부분 비둘기 스탠스 견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

ECB, 영국 중앙은행 등 유럽 주요 중앙은행들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이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여전히 하방 경직성 보이는 유가 흐름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

5월 국고채(3Y) 금리는 3.4%-3.60% 예상

- 전월 미국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확대 경향 등이 연준 금리인하 지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추가 긴축에 대한 부정적 시각 속 1분기 GDP 예상치 큰 폭 하회로 연준 고민은 깊어지는 양상. 이러한 점진적 경기 둔화 조짐 경계는 다소 비둘기 성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전월 지정학적 요인과 유가 상승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이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상기 요인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측면과 미 1분기 GDP 큰 폭 하회 등에 따른 경제 전망 불확실성 등을 반영, 추가 인상 일축 등의 영향 속 다소 비둘기적이었던 최근 FOMC 결과 반영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금리는 소폭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도비시 했던 연준에 앞서 유럽 주요국과 ECB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증대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하방경직성 상존 등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한 점 등은 금리 하단 지지에 영향 요인으로 판단
 - 5월 FOMC에 대해 시장이 비둘기 기조로 인식하였지만, 이에 앞서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 금리 인하 단행 속 ECB도 연준에 앞선 6월 인하 예측이 높아지는 점 등이 국내외 금리하락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국제유가의 하방경직성 요인 등이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은 국내외 금리 하단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소 강한 1분기 성장 결과는 한은 매패 성향 자극 요인. 하지만 4월 물가가 기저효과와 전월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재차 2%대 후반 감소세 나타낸 점과 연준 도비시 성향 고려 시, 한은도 결국 다소 비둘기 성향 유지할 것이란 예상이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
 - 대내적으로 미국 1분기 성장을 대비 다소 강했던 국내 1분기 성장률 결과 속에 최근까지 3%대 이상의 높은 물가 수준 고려 시, 한은 금리인하 시점이 뒤로 후퇴하는 측면에 대한 반영은 국고채 금리 하단 지지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최근 연준 회의가 미국 경기 상황 등을 고려 다소 도비시 경향 속 시장의 3분기 중 인하 가능성 인식과 전월 소비자물가가 재차 2%대 후반으로 재진입하는 등의 상황 등을 크게 고려할 가능성 등이 소폭의 금리 하락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전월의 지정학적 요인 상존 속 하방경직성 보이는 유가 흐름 · 국내 성장의 견조함 예측에 따른 한은의 금리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	· 5월 FOMC에 대한 다소 비둘기적이었던 인식 · 연준에 선제적인 주요 유럽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4 월
동향

미국 경제지표의 견조함과 Fed 인사의 매파 발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중동 리스크 영향 속 1,400원까지 고점 높였으나 당국 시장 안정 의지에 상단 제한되며 1,380원대 마감

탄탄한 미국 경제지표와 연준 위원의 연내 금리인하 부재 가능성 언급 등에 연준 피벗 기대 약화되는 가운데 환율은 1,350원대 전후에서 등락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이 야기한 글로벌 달러 강세에 1,400원대 터치 후 외환당국 미세 조정과 개입 경계감에 상단 제한

미국 1분기 GDP 둔화에도 여전히 물가 경계감과 BOJ의 비둘기 스탠스 반영한 엔화 약세 등에 달러 강세 지속되며 1,380원대 초반에서 마감

■ 월초, 미국 제조업 경기,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호조와 주요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등에 연준 금리인하 지연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되며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

- 월초, 미 3월 ISM 제조업 PMI의 확장세 전환에 연준의 상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약화되며 환율은 상승 출발 후 미 서비스업 지표 둔화와 연내 금리인하 입장 유지한 파월 의장 발언에 하락
- 그러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내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과 시장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한 미국 비농업 고용 데이터 등에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환율은 상승 전환

■ 월 중반, 예상을 웃돈 미 CPI와 소비자지표 등 인플레이션 둔화세 정체될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1,400원 터치 후 외환당국 개입에 상단 제한된 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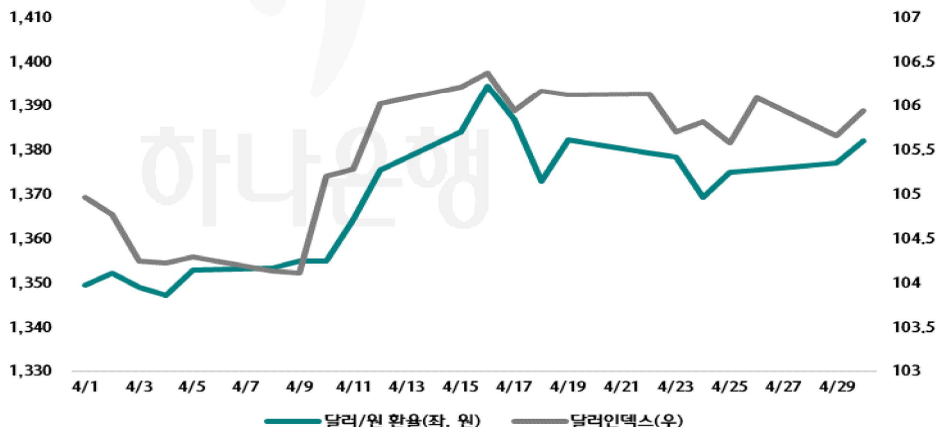
- 중반, 두 달 연속 시장 컨센스를 상회한 미 CPI와 도비시한 한은 4월 금통위에 추가 상승 후, 중동 확산 우려 속 글로벌 강달러 심화되며 장중 1,400원 터치했으나 외환당국 경계감 강화에 상단 제한
- 이어 미 3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와 파월 연준 의장의 제약적 정책 기조 유지 가능성 언급 등 연준 피벗 시점 후퇴 예상에도 한미일 공동성명문 등 당국 개입 경계감 고조에 1,370원대로 되돌림 시현

■ 후반,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PCE 물가와 BOJ의 금융완화 기조 유지에 따른 엔화 약세 압력 등이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며 1,380원대 초반 마감

- 후반, 뉴욕 연은 총재의 추가 긴축 가능성 열어두는 발언과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에 장중 1,392.9원까지 상승했으나 중동 확산 우려 완화와 미국 S&P글로벌 PMI 부진에 강달러 제한되며 하락
- 이후 미 1분기 GDP 둔화에도 PCE 물가의 견조함에 의해 재차 부각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BOJ 금정위를 반영한 엔화 가치 하락 등이 간접적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양상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4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69.3
4월말 달러/원 환율
: 1,382.0



자료: 하나은행

5 월
전망

연준 금리인하 시점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 리스크 지속에 달러의 전반적 강세 예상되나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과 외환당국 개입 경계심리 등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29	1,355 ^(F)	1,310 ^(F)	1,290 ^(F)

미국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속 연준 금리인하 지연 전망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가능성에 달러 강세 예상되나, 미국 GDP 둔화와 파월 의장의 추가 긴축 선의 가능성 일축 발언 등에 강달러 압력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 견지 등은 달러 강세를 견인할 요인. 그럼에도 이전 대비 둔화된 미국 경제 성장세와 다소 비둘기적인 5월 FOMC 등에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잔존하며 달러 강세를 일부 제한할 전망
 - 최근 부각된 미국 인플레이션 고착화 리스크로 연준 당국자들이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ECB, BOJ 등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기조에 달러화의 강한 흐름 제한될 전망
 - 그럼에도 연준의 양적긴축 감속 계획과 파월 Fed 의장의 추가 긴축 가능성 배제 등 5월 FOMC의 일부 도비시한 결과에 시장 우려는 다소 제한될 전망 속 미국 1분기 GDP의 예상치 하회 등 성장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 압력을 완화할 요인으로 보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도 확전 우려가 다소 완화된 측면과 수출 호조에 기반한 국내 성장률 개선 등이 원화 가치를 지지할 전망

- 중동 이슈 부각 속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와 리스크오프 강화 등이 달러화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지만, 중동 내 추가 확전 우려 완화된 측면은 이를 상쇄할 요인
 - 이란과 이스라엘 간 재보복 공격 이후 중동 전쟁 확산 리스크 상존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위험회피 심리 자극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국의 중동 분쟁 확산 중재 노력 속 현 상황에서 확전 가능성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달러화의 추가 강세에는 제한적으로 영향 미칠 전망

5월 달러/원 환율
1,350원 ~1,385원 예상

- 한국 경제성장률 호조와 수출 연속 증가세 등은 원화 강세 지지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 표명에 따른 개입 경계감 또한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
 - 한국 '24.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상회한 가운데 내수 회복세와 수출 호조 등 경기 편덕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원화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에 한미일 공동성명문 등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에 따라 개입에 대한 경계심리에 의해 1,390원선에서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美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달러 강세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잔존 속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심리	· 수출 증가세 등에 의한 한국 GDP 호조와 원화 강세 모멘텀 강화 ·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개입 경계감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원 전망

4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4.0

4월 엔/원 평균환율
: 889.0

5월 엔/원 예상범위
: 875~895원

BOJ 통화 약세 의지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당분간 긴축 시그널은 부재할 전망이다. 반면,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정책 당국 경계감 강화와 5월 FOMC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인식된 점 등이 약세 흐름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엔화 동향) 일본 당국의 연이은 구두개입에 151엔대에서 횡보했으나 시장 컨센 상회한 미국 3월 CPI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반영하며 약세 출발. 중반,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의해 안전자산 선호 강화된 측면이 엔화의 추가 약세를 제한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의 제약적 정책 기조 유지 가능성 시사에 약세 압력 가중됨. 후반, BOJ 금정위에서의 완화 기조에 장중 달러당 160엔선을 돌파 후 일본 당국의 개입 추정 영향 속 약세 일부 되돌리며 마감
- (엔/원 전망) BOJ는 3월 정책 정상화 단행 이후 관망 기조 유지하며 추가 시그널은 부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중심 실적 기대 등을 통한 제조업 모멘텀 확대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수입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 급격한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직접적 경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일축 등에 따른 달러 강세 후퇴 영향 가능성도 엔화의 급격한 약세 흐름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연준 금리인하 후퇴 전망과 BOJ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 유지 등이 전반적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엔 약세의 긍정적 수출 경기 견인에도 물가 자극 고려 등이 경계감 강화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 엔/원 환율은 BOJ 개입 등의 경계감 강화 등이 약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정학적 요인 등 대외 불안 요인 완화에 따른 상대적 원화 강세 반영 등으로 875~895원 사이 등락이 예상

유로/원 전망

4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724

4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67.6

5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65~1,485

유로존 성장 모멘텀은 중국 등 주요국 성장 둔화로 강하지 않은 국면. 여기에 최근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6월 금리인하 전망 등이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이다. 다만 5월 FOMC 비둘기적 결과 등은 약세 제한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 (유로화 동향) 미국 제조업 확장세 전환에 따른 달러 강세에 유로화는 약세 출발 후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이 부각되며 강세 전환. 중반, 미국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인한 연준 통화정책 피벗 전망 후퇴와 중동 확전 리스크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큰 폭의 약세 시현했으나 ECB 총재의 환율 영향 주시 발언에 추가 약세는 제한. 후반, ECB의 6월 금리인하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미국 고용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경계감 등에 달러 대비 약세 마감
- 역내 인플레이션 영향과 이에 따른 통화 긴축, 중국 등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유로존 성장 모멘텀 강하지 않은 국면. 그나마 다행히 유로 역내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목표 2% 근접으로 6월 금리인하 가능성 커진 점이 유로 약세에 주요하게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로존의 그간 인플레이션 영향과 이에 따른 긴축 영향 및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로 유로존 경기회복 양상이 여전히 미약한 상황
- 하지만 유로존 물가가 2%에 근접하며 6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커진 측면이 유로 약세 주요하게 견인할 가운데 유로/원은 상대적 원화의 통화 차별화 양상으로 1,475원 전후 흐름으로 하락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한국유창, 미국FOMC [유창] 한국(고려자의 날), 중국, 홍콩(노동절) 프랑스, 독일(노동절) 미국 FOMC(4/30~5/1)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25~5.50%로 5연속 통일, 근로한 경제지표, 인플레이치속도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회 한 4월 수출입(YoY +3.1%, -12.3%) 미 3월 인플레이션(MoM -0.3%) : 4월 ADP 취업자변동(8756k) ISM 제조업, 구매물가, 신규주문, 고용	2 [유창] 중국(노동절) BOI 3월 금정회 의사록 공개 한 4월 CPI(MoM -0.1%, YoY +3.1%) CPI 관련(YoY +2.4%) S&P 글로벌 제조업 PMI(49.8) 미 1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P]QoQ +3.2%) 3월 무역수지, 내구재주문, 제조업수주(MoM +1.4%) 4월 Challenger Job Cuts(YoY +0.7%)	3 미국고용보고서 [유창] 일본(연법기념일), 중국(노동절) 미 4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303k)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MoM +0.3%)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고용, 신규주문 유 3월 실업률(6.5%) 오 4월 주도은행 호주PMI종합(53.6), 서비스업(54.2)	4	
5 어린이날	6 한국유창(대체공유일), 일본(대체공유일), 영국(노동절) [유창] 한국(대체공유일), 일본(대체공유일), 영국(노동절) 중 4월 Caxin 종합, 서비스업 PMI 유 3월 PPI(MoM -1.0%, YoY -8.3%) 오 4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F] 5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5.9)	7 RBA통화정책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5%로 3연속 속 통틀 에를, 온라인 신제품 공개 행사 미 3월 소비자신용지수 유 3월 소매판매(MoM -0.5%, YoY -0.7%) 일 4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8 지준일 미 3월 도매부의 판매(MoM +2.3%) 도매 재고(MoM +0.5%) 독 3월 산업생산 SA (MoM, 2.10%)	9 유선만기일, BOE통화정책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25%로 5연속 통틀,시장에서는 BOE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존재 BOI 4월 금정회 요약본 공개 중 4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7.5%, -1.9%), 통관금 일 3월 실질 임금증액(YoY -1.3%)	10 미 5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3월 가계 소비지출(YoY -0.5%) 4월 경기전망조사 현황, 전망	11
12 [OECD 경제전망] (1) 미국 4, 11월말 연세평균 대방, 3, 9월경 C2B 국 대방 정책통계지표 발표 (2) 올해 첫 반등은 2월이 발표 2월 전망에서세제 정책변동률 전망치 2.9%로 제시,국경일로는 미국 2.1%, 한국 2.2% 등 정부, 기업 발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담회의 개최 적악지, 연세통틀 등 공개예산 발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 방문 예정	13 한 5월 1~10월 수출/입(YoY +21.6%, +5.8%) 일 4월 통화량 M2(YoY +2.5%) 오 4월 NAB경기지수 오 4월 CBA 가계소비 (MoM, 0.2%) 오 4월 CBA 가계소비 (YoY, 3.4%)	14 MSCI반기리뷰 한 4월 수입물가(MoM +0.4%, YoY -0.7%) 수출물가(MoM +0.4%, YoY +2.6%) 미 4월 제1차 소기업 낙관지수(88.5) PPI(MoM +0.2%, YoY +2.1%) PPI 관련(MoM +0.2%, YoY +2.4%) 유 5월 ZEW 서베이 예상(43.9) 일 4월 PPI(MoM +0.2%, YoY +0.8%)	15 한국유창, 미국CPI [유창] 한국, 홍콩(석가탄신일) 미 3월 기업재고 4월 CPI(MoM +0.4%, YoY +3.5%) CPI 관련(MoM +0.4%, YoY +3.8%) 소매판매, 근원(MoM +0.7%, +1.1%) 발행 평균 시간당 임금(YoY +0.6%) 5월 뉴욕 제조업지수(-14.3) R 1Q GDP, 고용지 3월 산업생산(MoM +0.8%, YoY -6.4%)	16 미 4월 주택대금인수(1321k, MoM -14.7%) 간혹하기(1458k, MoM -4.3%) 수출물가(MoM +0.3%, YoY -1.4%) 수입물가(MoM +0.4%, YoY +0.4%) 항공업생산(MoM +0.4%) 설비가동률(78.4%), 제조업생산 5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0.6)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17 미 4월 선행지수 중 4월 신규주택가격, 소매판매(YoY +3.1%) 항공업생산(YoY +4.5%) 소매 매출(YoY +4.7%), 실업률(5.2%) 유 4월 CPI[F](MoM +0.8%, YoY +2.4%) CPI 관련[F](MoM +1.1%, YoY +2.9%)	18
19	20 한 4월 1~20일 수출/입 (YoY +11.2%, -6.3%) 미 3월 시카고 연방 국가합동지수(0.05) 유 4월 소비자대지수[P] 일 3월 3차 산업지수(MoM, 1.5%) 독 4월 PPI (MoM, 0.2%/ YoY -2.9%)	21 AI 정상회의(~22) 한-영 시 정상회의(~22) 한-일 소비자심리지수 5월 1~20일 수출/입(YoY +11.1%, +6.1%) 미 5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12.4) 유 3월 ECB 경합수지 건설생산(MoM +1.8%, YoY -0.4%)	22 4월 FOMC 회의록 공개 한 4월 PPI(YoY +1.6%) 한 4월 기업경기심사 제조업, 비제조업 미 4월 기준주택매매(MoM -4.3%) 일 4월 수출/입(YoY +7.3%, -4.9%)	23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5%로 10연속 통틀. 사항은 어떤 5월 수경정책방향에 주목 C7 재무장관회의 미 4월 시카고 연방 국가합동 지수(0.15) 신규 주택매매(693k, MoM +8.8%) 5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F] 유 5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일 5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F]	24 미 4월 내구재 주문(MoM +2.6%) 5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컨자스터 서비스업 활동 일 4월 국내 CPI, CPI 관련, 한국 CPI 독 1Q 인플레이션 (QoQ, 0.2%)	25
26	27 [유창] 미국(메모리일데이), 영국(공유일) 우주항공청 출범 중 5월 광업기업이익, 산업생산 유 4월 1년, 3년 CPI 기대	28 한 4월 석유, 광업, 제조업, 소매판매 미 1Q 주택 가격 구매지수(QoQ +1.5%) 3월 리버스 주택가격지수 5월 광물서비스업 소비자대지수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4월 PPI 서비스 (YoY, 2.3%)	29 미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현황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5월 소비자대지수(-24.2) 독 6월 소비자대지수(-24.2)	30 미 1Q GDP, 개인소비, GDP 물가지수 4월 소매재고, 도매재고 미일 주택매매 유 4월 실업률 5월 소비자대지수, 서비스대지수 산업대지수, 경기대지수	31 한 4월 광공업생산, 경계순환형 선행 지수 미 4월 PCE 소비재, PCE 관련 디플레이터 개인소득, 개인소비, 상품 개인소득 5월 MHI 시카고 PMI 중 5월 종합,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 5월 CPI, CPI 관련[F] 일 4월 산업통, 중앙은행, 소매판매 5월 도매 CPI, CPI 관련	

대한은행

장*정 / 0118208**



하나은행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